

# 농어촌 가톨릭 의료기관의

## 의료사업 현황보고

성주 성심의원

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을 간단히 소개 말씀 드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성심의원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동 두메 산골에 자리잡아 세상 사람들로 부터 버림받아 그늘진 생활을 이어가는 나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13년전 왜관 분도 수도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설립된 병원으로서 나환자들의 입원을 위해서 14개의 베드를 갖춘 조그마한 시설이지만 그동안 디오메데스 원장 수녀님의 헌신적 봉사로 당초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65년부터 인근 김천, 금릉, 선산, 칠곡군은 물론 멀리 상주, 문경 등 여러곳곳의 환자들중 생활이 극히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영세생활 보호 대상자와 극빈자등 일반 환자치료까지 전담하다시피 하고있어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사랑의 인술을 펴고있는 병원으로서 원장 수녀님을 비롯한 11명의 종사원 모두가 하나같이 자량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의 진료 실적을 살펴보면 총 1만 3천 7백(주평균 200명)여명의 진료자중 무료 환자 치료가 9,130명에 이르고 있고 무료 금액은 14,631,000원이며 그중 350명은 저희 병원 시설이 빈약하여 종합병원 전문의의 치료를 위해 대구 동산병원, 파티마 병원, 경대의대 부속병원, 가톨릭 피부과 병원등에 이송하여 환자를 의뢰, 치료를 받게하고 환자의 형편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는 한편 일반병원을 찾아가지 못하는 심한 불구 나환자와 인근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 봄, 가을, 정기적으로 안과, 치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무료 진료 케하고 의치, 의족, 안경등을 필요에 따라 당병원에서 마련하여 주고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1. 의료 요원 수급 상황

의료진은 의사 1명 간호원 4명 사무요원 1명 기타 종사원 5명등 도합 11명이 있습니다만 의사 1명으로서는 날로 격증하는 환자들을 진료하기에는 너무 손부족 현상을 빚고있어 때로 일부 외래 환자들을 진료치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어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2. 질병 상태와 종류 및 연령별 실태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살펴보면 전체의 약 50% 이상이 피부병 환자이고 결핵과 위장고혈압 신경통 환자가 각 20% 정도 그의 ENT 환자 부인병등이 10%정도를 점하고 있고 대부분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완치를 못하는 만성 질환자나 생활이 어려워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입니다.

대체로 질병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1歲-16歲가 10%, 17歲-30歲 30% 31歲-59歲 50% 60歲 이상이 10%, 이상으로 31歲-59歲의 장년층이 가장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 3. 의료비 지불 실태와 병원 수지 증감경향

진료 환자의 대부분이 무료 환자이고 유료환자라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약값의 원가만 받고있는 실정

인데 병원 운영비는 예산의  $\frac{1}{3}$ 은 독일 나협회,  $\frac{1}{3}$ 은 의태치료비,  $\frac{1}{3}$ 은 왜관 수도원, 그의 특별치료 등 결핵환자의 약값등은 원장님의 친구들이 보내 주는 원조로 충당하고 있어 수입없는 지출만의 운영을 유지해 오고있는 실정이나 환자들의 생활상을 감안, 이 운영 방침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 4. 병원 운영 전망 및 기타

계속 늘어나는 환자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료하기 위하여 보다 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어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사랑의 인술을 펼수 있겠금 환자 치료에 중요한 의료기구를 수입하고 의료시설을 보강하고 있으나 이 모두가 외국원조 단체의 도움없이 할수없는 일로서 외국만이 아닌 국내의 저명 사회사업 단체나 뜻있는 사회사업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14면에서>

한 사업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교구를 중심으로 하여 각본당과 부락단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2명의 요원이 한주일에 4일을 직접 부락으로 나가 지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별 지도와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락에의 육망을 내던지고 이시골에 왔습니다. 그러기에 비를맞으며 바람을 쐬며 자동차가 들어갈수 없는 벽촌까지 몇킬로씩 걸어갑니다. 때로는 물이해와 사나운 눈초리에 부딪치고 또 때로는 마당가에서 금방 따주는 배나 감을 먹으며 눈물이 글썽하도록 고마울

때도 있습니다. 시골에서의 진료나 예방사업은 모든면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정부든 종교인 혹은 민간인이든 누군가 해야할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결핵환자를 위한 요양소도 있어야겠고 지역민이 마음놓고 언제라도 치료받을 수있는 의료보험제도도 수립하고 싶습니다. 신념과 노력으로 살아가는동안 이루어질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서없이 저희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사무실 이전 안내>

본회 사무실을 지난 9월 1일 아래와 같이 이전 하였기 알려드립니다.

이전장소 : 서울중구 명동 2가1

가톨릭의대부속 성모병원기획실내(4층)

전화 : 776-4086 776-4051교88

한국가톨릭병원협회  
한국행복한가정운동협의회